

말씀

요 1:1-3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는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할까요? 구원자가 갖추어야 할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자는 인간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인간보다 초월적인 존재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자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번째 조건은 무엇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자는 인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이 인간을 구원한다면 그 구원은 강압적이지요 억지로 만든 것이 됩니다. 참으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인간 이상의 존재이면서 동시에 인간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자의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 지상에 하나님이면서 인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거짓말이라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눈여겨 보십시오.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이란 무엇일까요?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던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비스러운 존재, 초월적인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알듯하면서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음 속으로는 다 믿지만 하나님에 대해 물어보면 구체적으로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은 막연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막연한 존재가 아니듯이 하나님은 구름과 같은, 안개와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막연한 관념이나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기지 않는 까닭은 하나님을 막연한 존재로 보기 때문입니다. 막연한 기대, 막연한 생각 때문에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고, 사랑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사람이 하는 말을 ‘말’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하는 말을 ‘말씀’이라고 합니다. 말 자체는 특별히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이라고 할 때, 우리들이 하는 말과는 달리 하나님이 하는 말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말씀’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합니다. 그것은 헬라인들이 절대적인 존재를 설명하려고 할 때 썼던 단어인데 요한이 복음을 기록하면서 사용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태초부터 존재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태초’는 시간과 역사가 생기기 이전, 인간이 생기기 이전을 말합니다. 영원 전부터 존재했던 것이 말씀이었고, 그 말씀의 실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말씀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실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실체를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막연한 존재가 아닙니다. 따라서 기도는 영불이 아닙니다. 독백도 아닙니다. 자기 암시도 아닙니다. 기도는 실체와 함께 하는 대화입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신음소리까지 들으시고, 내 형편을 아시고, 나를 위해 눈물과 피를 흘리시며, 나를 위해 온 몸을 던져서 사랑했던 실체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오신 그분은 만

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실체는 예수님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하나님의 실체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상상할 수 없었던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빌립보서 2장 5~8절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매...

예수는 인간이었지만 그분의 본체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기를 포기하셨습니다.

사랑은 얻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입니다. 갖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을 포기하고 인간으로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들의 사랑은 전부 가짜입니다. 가짜이기 때문에 내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착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됨을 포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인간이 되셨을 뿐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 오셨고, 가장 처절한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나의 실체는 내가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변함이 없고 거짓이 없습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신다는 것은 듣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듣지 못하면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하고 듣는다는 것은 상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있다는 것은 인격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혼자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분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분과 사랑의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말씀'이라는 것이 이런 뜻입니다.

인간은 돌을 깎아놓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찬물을 떠놓고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으면 우상을 만들어서 가짜에게 빌고 절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의 공허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만든 하나님과는 대화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외로워서, 공허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인격이입니다. 인격이 깨어지면 사랑도 깨어집니다. 신앙도 인격입니다. 교회에도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인격이 파괴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 그 사람들의 신앙도 파괴 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이렇게 구체적이고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살펴보면 말씀은 죽은 존재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죽은 자의 특징은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한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죽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죽은 것도 살아납니다. 없는 것도 있게 됩니다. 안되는 것도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막연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체입니다. 천국도 실체입니다. 지옥도 실체입니다. 그것은 관념이나 이론이 아닙니다. 믿음은 밥 먹는 것과 같습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 경험인 것입니다. 이해하면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실체,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때 하나님이 보입니다.

마음 문 열고 예수 만나십시오

하나님은 삼위일체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개인주의를 배격합니다.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연합과 일치'입니다. 마귀의 주특기는 '분열과 파괴'입니다. 저는 우리 민족이 하나 되기를 바라고, 우리 사회와 가정이 하나가 되기 바랍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하나가 되고, 배운 자와 못 배운 자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에 대해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영원한 존재가 유한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사랑 빼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포기할 수 있고 양보할 수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보면서 사랑을 느낄까요? 요즘 교회는 더욱 이기적이고 뭔가를 가지려고 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본질에서 멀리 떠나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개인주의가 아닙니다. 공동체입니다. 연합과 일치가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실체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 긍정적인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그냥 온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기 원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기 원하십니다. 뜰구름 잡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실체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신에게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육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여러분은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육체로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이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아직 성경을 잘 모르거나 교회를 모르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느끼느냐가 중요합니다. 만약 느끼신다면 거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찾아가셔서 만나주실 것입니다.

☞ 「온누리신문」 제공 - <http://www.onnurinews.com/>